

tvN '아스달 연대기' 돌아온다...내달 7일 첫방송

'태고의 땅'에서 서로 다른 전설 써가는 영웅들 운명적 이야기

6월1일 Part1 · 7월7일 Part2 이어 더 웅장하고 스펙터클 스토리

tvN '아스달 연대기'가 파트3 '아스, 그 모든 전설의 서곡' 1차 예고편을 전격 공개했다.

지난 6월 1일 처음 방송된 tvN 주말드라마 '아스달 연대기'(극본 김영현, 박상연/연출 김원석/제작 스튜디오드래곤, KIP)는 태고의 땅 아스에서 서로 다른 전설을 써가는 영웅들의 운명적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지난 7월 7일까지 'Part1 예언의 아이들'과 'Part2 뒤집히는 하늘, 일어나는 땅'이 방송된데 이어 오는 9월 7일 시작될 'Part3 아스, 그 모든 전설의 서곡'은 더 웅장하고 스펙터클한 스토리 전개로 안방극장을 찾아

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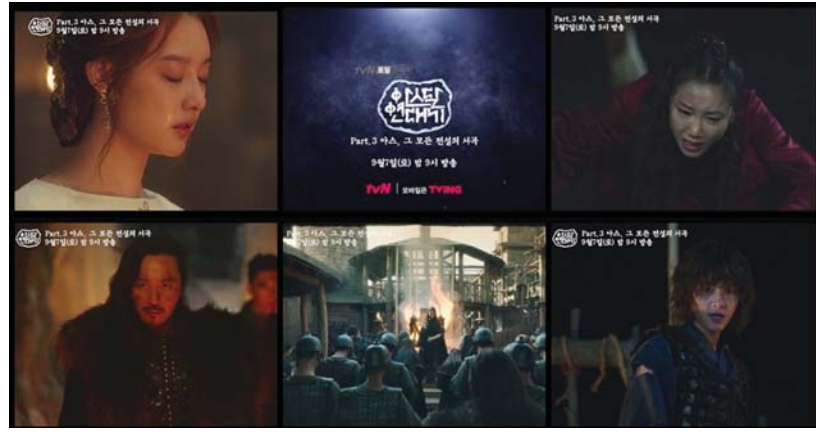
지난 24일 공개된 1차 예고편에서는 아스달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분투하는 장동건 송중기 김지원 김옥빈의 강렬하고 생동감 넘치는 자태가 고스란히 펼쳐졌다.

엄숙한 음악과 함께 시작된 '아스달 연대기' Part3 1차 예고는 타곤(장동건 분)이 청동 의자에 위엄 있게 앉아 있는 모습에서부터 시선을 강탈했다. "지금 모든 부족에서 큰바람이 일고 있겠지"라는 타곤의 대사와 맞물려, 화려한 예복을 갖춘 타아(김지원 분)의 손짓에 연맹국을 가득 채운 연맹인들이 열광하는 모습과 깃바다

에서 펼쳐 나와 격렬하게 정투를 벌이는 은섬(송중기)의 모습이 파노라 마처럼 이어지면서, 아스달에 휘몰아칠 거센 변화의 바람을 짐작케 했다.

이어 "기억해라. 그 목소리는 그 더러운 이그트 새끼가 준 거란 걸"이라는 분노에 휩싸인 은섬의 목소리 위로, 칼을 든 채 날아오른 보랏빛 입술의 은섬과 보랏빛의 눈동자를 번쩍이며 칼을 휘두르는 타곤이 섬뜩한 기운을 뿜어내면서, 아스달의 이그트(뇌안탈과 사람의 혼혈)들에게 적색 경보가 울렸음을 상징했다.

반면 타아와 태알하(김옥빈 분)에게는 격한 고난이 닥칠 것임을 예고



됐다. 청동거울 앞에 있던 태알하는 기습공격을 당하고, 위상이 높아진 타아는 슬픔 속에 눈물을 떨구고 있는 것. 하지만 이어 타아를 뒤에서 안아주며 위로하는 사야(송중기 분)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의 묘한 기류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또 광기에 찬 듯한 타곤이 "그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모조리 죽여줄게"라고 포효하면서 폭주하는 모습과 더불어 "타곤은 변했다"는 미황(조성하 분)의 대사와 청색 슈마그를 쓴 채 불을 피우며 예를 갖추는 태알하의 비장한 표정에서 타곤과 태알하 사이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드러났으며 무엇보다 거대한 곱에 달려들며

살아남은 은섬은 "나 외환의 은섬. 당신들 모두를 품겠습니다!"라고 외쳤고, 이에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권력의 중심에 선 은섬이 등장했다. 이에 반해 타아는 무백(박해준 분)과 연맹인들 앞에서 "모두 사지를 찢어 사방에 나누리라"라고 독한 저주를 내려 대비를 이뤘다. 힘을 가지게 된 두 사람의 극과 극 활약이 담긴 가운데, 격한 액션과 함께 거대한 폭포로 떨어지는 은섬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아스달 연대기' 중 역대급 Part3를 예고하고 있다.

제작진은 "아스달 연대기'의 마지막 부분 Part3가 1차 예고편을 통해 짧게나마 시청자들을 만나게 됐다"며 "아스달에서 힘을 가지게 된 이들의 신화 탄생기가 흡입력 있게 담긴 파트3를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오는 9월7일 첫방송.

뉴스1

마블, '이터널스' 콘셉트 공개...마동석표 히어로 비주얼은

오는 2020년 개봉 예정...전세계 마블팬 '관심'



히어로가 된 마동석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25일 마블엔터테인먼트는 미국에서 열린 D23 엑스포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오는 2020년 개봉 예정인 마블의 새 시리즈 '이터널스'의 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며, 이들의 히어로 버전 사진도 공개됐다. 다채로운 캐릭터들과 새로운 히어로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 마블팬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이터널스'는 수백만년 전 인류를 실험하기 위해 지구로 온 셀레스티얼이 만든 우주 에너지를 정식으로 조종할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을 지닌 불사의 종족 이터널스가 빌런 데이안츠와 맞서 싸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MCU(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다.

'전참시' 신봉선, 송은이 소속사 계약...1호 연예인 탄생

'전자적참견시점' 신봉선이 송은이가 차린 소속사와 계약을 했다.

24일 오후 방송된 MBC '전자적 참견시점'에서는 새로운 참견인으로 신봉선과 장성규가 출연했다.

이날 신봉선의 매니저로 소속사 대표인 송은이가 나타났다. 최근 소속사를 차린 송은이는 셀럽파워 제작을 하면서 서로에게 도와줄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다가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신봉선과 송은이는 계약서 작성을 위해 만남을 가졌다. 신봉선은 계약서 작성에 앞서 본격적으로 계약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했다. 꼼꼼하게 계약서를 확인하던 신봉선은 "못 읽겠다"며

웃음을 보였다.

송은이의 회사 1호 연예인으로 신봉선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송은이가 소속사 대표로 신봉선을 제보할 내용은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내용이였다.

송은이는 공황으로 신봉선을 데리러 나갔다. 신봉선은 송은이가 대신 집을 들어주자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봉선은 "선배로서 평소 많이 도와주지만 이날은 좀 이상했다"고 말했다.

스케줄을 위해 이동하는 차 안에서 신봉선은 남자친구가 생기면 소속사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봉선은 기자에게 사진을 찍



히지 않게 신변보호를 약속해 달라고 말해 웃음을 주었다.

'변신' 박스오피스 1위...극장가 흥행 복병

영화 '변신'이 4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하며 8월 극장가의 흥행 복병으로 자리잡았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변신'은 지난 24일 22만 8499명을 극장으로 불러 모아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했다. 현재 누적 관객수는 53만9399명이다.

'변신'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악마가 가족 안에 숨어들며 벌어지는 기이하고 섬뜩한 사건을 그린 공포 스릴러물로, 깜짝 흥행을 이루며 주목받고 있다.

이어 '분노의 질주 홉스&쇼'가 20만9836명을 동원해 2위를 유지했다. 누적 관객수 278만5567명이다.



조정석 윤아 주연의 '엑시트'는 19만761명이 관람했으며, 818만5861명을 관객을 동원하는 기록을 썼다.

'광대들: 풍문 조작단'은 11만 7533명이 관람했으며, '봉오동 전투'는 10만8009명을 불러 모았다.

데뷔 D-1 엑스원, '플래시' 뮤비 티저 공개 '섹시+남성美'



신인 보이그룹 엑스원(X1)의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이 공개됐다.

25일 0시 엑스원(한승우, 조승연, 김우석, 김요한, 이한결, 차준호, 손동표, 강민희, 이은상, 송형준, 남도현) 공식 SNS에는 첫 번째 미니 앨범 '비상 : 퀀텀 리프' (QUANTUM LEAP)의 타이틀곡 '플래시' (FLASH)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을 통해 엑스원은 한층 성숙해진 비주얼을 뽐냈다. 섹시하면서도 남성미 넘치는 카리스마를 뽐내는 이미지 컷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와 함께 엑스원의 퍼포먼스도 시선을 모았다. 타이틀곡 '플래시' (FLASH)에 맞춰 멤버들이 선보이는 절도 있는 칼군무는 한층 성장한 X1의 캠페를 더욱 기다려지게 만들었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